

# 두갈래 야권통합... 지형재편 가속화

민주·혁통·노동계등 참여 통합정당 연석회의 출범  
27일까지 준비위 구성...내달 17일 통합 전대 개최  
민주당내 독자 전대와 반발 속 23일 중앙위 분수령

민노-참여-통합연대, 통합진보정당 창당 합의  
이정희·유시민·노회찬 3인 공동대표 체제 운영  
범야권 '대통합' 보다 향후 선거연대 가능성 무게

민주당과 통합과 혁신 등이 이끄는 야권 통합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연석회의가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야권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일부 세력의 반발 속에 오는 23일 당 지도부의 통합수임을 받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해 야권통합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은 20일 국회에서 '민주진보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추진기구 구성 및 통합의 범위·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화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최병호·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 각 정파 및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달 17일까지 야권 통합전대대회를 열어 창당 작업을 완료키로 했으며, 세부 논의를 거쳐 통합전대를 위한 법적, 정치적 절차와 일정은 오는 25일 2차 연석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혁신과통합 민만기 대변인이 전했다.

손 대표는 이날 "통합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진보정당이 함께하지 않아 아쉽지만 자리에 함께 모인 세력만으로도 대단히 폭넓은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목표로 준비하는 통합 작업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야권은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정당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다음달 17일 통합 전대대회를 치르는 일정을 갖고 있다.

문제는 통합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가질 중앙위원회 결과. 민주당은 지난 18일 영등포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23일 중앙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454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중앙위는 지도부가 민주당뿐 아니라 범야권이 동참하는 통합전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전권(통합수임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는 자리다.

하지만, 민주당 독자 전대파들은 오는 22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진보 및 시민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혁신과 통합 문재인·이해찬·문성근 상임대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임시전대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세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당헌상 중앙위원회가 통합수임권을 지도부에 일임할 규정이 없는 데다 통합의 대상이 정당이 아닌 세력이라는 흡수합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중앙위에서 집단 반발할 경우 몸싸움 등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당의 최대 주주인 당 지도부 대부분이 통합 전대에 찬성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대부분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앙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통합에 대한 여론지지도도 높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전국외 성인남녀 9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구간 95%, 오차범위 ±3.16%)를 보면 야권통합정당의 지지율이 42.6%로 한나라당(31.2%)을 앞섰다.

경선을 협상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대의원 20%, 당비당원 30%, 일반당원 50% 등 당원 중심의 통합전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다른 세력들은 국민이 최대한 참여하는 '안전개방형 전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교수도 동참 바란다”

문재인, 혁통 전남지역위 출범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는 지난 18일 '혁신과 통합'에 안철수 교수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순천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전남지역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합을 이룬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일부 지역 부분적 선거 연대는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어렵고, 선거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돼 승리를 위한 보장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아닌 ‘연대’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진보정당 창당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노동당 이정희·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새진보통합연대 노회찬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정당 건설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정당은 세 진영에서 1인씩 총 3인으로 공동대표 체제를 꾸리고 과도기 대의기구는 민노당 55%·참여당 30%·통합연대 15% 비율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당명은 공모방식을 거쳐 3개의 복수안을 마련한 뒤 당원 전수조사와 여론조사를 필반적 반영에 결정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27일 당대회, 국민참여당은 내달 3일 또는 4일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최종 의결하고, 통합연대는 23일 시도당 대표와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이 진보정당 간의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의 야권 대통합은 ‘중통합’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혁통은 한국노총·민주노동당·노동당 등 각 분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접촉하며 통합 정당의 외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야권통합의 또 다른 핵심인 통합진보정당이 이념·노선·정책 등을 이유로 진보통합을 확정짓고 독자 세력화에 나서며 따라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야권통합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측간 대통합은 어렵지만, 단일대오 형성이 내년 선거에서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한시적 선거 연대를 통한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예산 얼마나 지켜낼까

국회 예결특위 오늘부터 계수조정회의  
강기정·주승용·이정현 의원 활약 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계수소위)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따라서 계수소위 논의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계수소위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증·신설된 지역예산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 15개 상임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 326조 1000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7%에 해당하는 8조649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는 복지예산 확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4대강 후속사업, 대륙고속도로 및 상급직 지원예산 등에는 이견이 상당해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민의 관심은 국회가

이번만은 지역 예산을 지켜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12명으로 이뤄진 계수소위에는 광주·전남에서 강기정·주승용(이상 민주당)·이정현(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이나 포함돼 어느 해보다 많은 지역예산이 지켜질 기미가 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예산 관계자는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예결위원은 물론 소위원회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수소위는 오는 29일까지 감액·증액내역을 정리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앞서 합의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여야관계의 경색이 예산안 처리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4일 한미FTA 처리 D-데이 앞두고

# 국회 전운 감돈다

박의장 직권 상정 시사  
여야 협상과 선택 주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 ‘D-데이’로 거론되는 24일을 내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돈다.

한나라당은 20일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외교통일위원이 여전히 상임위 처리에 미련을 갖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야간 충돌 회수를 줄이기 위해 해서라도 본회의 ‘원샷’ 처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현재로서는 직권상정 밖에 길이 없으며 조

만간 박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더 중재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이 없다”며 결심을 굳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불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동전선을 구축한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위해 물밑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협상파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타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등은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21일 또는 22일 손 대표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상사 여부가 주목된다.

또 한나라당 홍정욱·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6인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시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서합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핑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치 ~ 치료 치료

## 공무원 특별자금

무주회 기록서비스 · 개인회계정리서비스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항)
- ◆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 (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급리 대출 이용 중 이시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병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항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회차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 KBSI세~80%+a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3.93%~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자금액: 20억원포함  
-한의원/치과전문병원등

###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수원지구 상가 분양·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  
고급식당·독서실·PC방  
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 2층~7층 까지 20(평)~21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세비없음

★국민은행 2차 코너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2차 모아엘가 정문아파트(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건축시공★ 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전문

- 수익성 상가
- 안전한 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기획부터 책임마감까지 원스톱으로 시공해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중 (전남대 정문 2분)

- ★1억에 5채
- ★1년간 임대수익보장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양도세 혜택
- ★항시 건축토지구획

(주)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 (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북구 문흥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75평 건평130평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농지및토지**  
·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과수원3,600평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6천만  
·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농지(관리지역)1880평  
감정가1억1천만 최저가7천6백만

**전원주택**  
· 담양군 남면 구산리 단독주택 대지152평 건평43평  
감정가8천7백만 최저가6천2백만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단독주택 대지927평 건평42평  
감정가1억7천만 최저가1억2천만

**근린용지**  
· 남구 백운동 4차선대로면 대지70평(중주거지역)  
감정가2억9천만 최저가2억

**투자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동천향4차선도로면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원당향농부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